

한-케냐 인프라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7월 2~3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해당년/월/주/일	전년/월/주/일	참고시점
환율(1USD)	129	129	2025.7월
인플레이션(%)	3.8	3.8	2025.6월
CPI(points)	146	145	2025.6월
정부부채비율(% of GDP)	65.5	72	2024.12월

출처:trading economics

○ 케냐 실링 약세, 달러 비축 확대가 외화예금 증가로 이어져¹⁾

- 케냐 실링 약세와 기업들의 달러 비축 증가로 케냐의 외화예금이 2.5%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인 KES 1.27조를 기록함.
- 수출업체와 다국적 기업들이 2024년 초 기록적인 케냐 실링 가치 하락 이후 추가 약세를 예상하며 달러를 장기간 보유함.
- 케냐중앙은행(CBK)은 외화예금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유동성을 개선했지만 투기성 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전문가들은 CBK의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달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케냐 실링에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재정난으로 인해 국고채(T-Bills) 차입, KES 1조 도달²⁾

- 케냐의 국고채(T-Bills) 차입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KES 1조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와 세수 부족을 반영함.
- 단기 국내 차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민간 부문 신용을 축소시켰으며, 은행들은 대출보다 무위험 국채를 우선시하고 있음.

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markets/currencies/weaker-shilling-stockpile-lift-foreign-currency-deposits-5100122>

2)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borrowing-in-t-bills-hits-sh1trn-on-state-cash-crunch-5100318>

- 연간 KES 1,000억 이상의 높은 이자 지급은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2024/25 회계연도에 만기 물량이 집중되면서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음.
- 경제학자들은 재정적 리스크를 경고하며, 변동성이 큰 국고채(T-Bill) 자금 조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출 삭감과 세제 개혁을 촉구함.

○ 세계 경제 전문가들, 케냐 인플레이션 전망 하향 조정³⁾

-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민간 소비 지출의 성장 둔화를 이유로 케냐의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 조정함. 이는 농업 수확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복수 기관의 컨센서스 전망에 따르면, 케냐의 올해 평균 인플레이션은 4.4%로 예상되며, 이는 1월 전망치인 4.7%보다 낮은 수치임.
-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17.22%에서 2025년 5월 15.44%로 하락했지만, 민간 부문으로의 신용 흐름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임.
- 향후 유가 상승 가능성과 케냐 실링의 변동성이 위험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어, 이는 긍정적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음.
- 인플레이션 하락은 케냐중앙은행(CBK)이 2025년 후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음.

○ 6월 인플레이션을 3.8%로 안정세 유지⁴⁾

- 2025년 6월 케냐의 인플레이션율은 3.8%로 유지되며, 최근의 변동 추세에 일시적인 제동이 걸림.
- 이러한 안정은 일부 채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식용유, 전기, LPG 가스 등 주요 생필품 가격 하락한 데 기인함.
- 전년 대비 6.6% 상승한 식료품 및 비알코올 음료 항목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전체 인플레이션은 안정세를 보인 반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3.0%를 기록, 비근원 인플레이션은 6.2%로 상승하며 다양한 부문에서의 기

3)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global-economists-lower-kenya-s-inflation-outlook-5101494>

4)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business/article/2001523092/inflation-rate-holds-steady-at-38-per-cent-in-june>

저 물가 압력을 나타냄.

○ 통화량 증가로 근원 인플레이션 3% 상승⁵⁾

-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케냐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3.0%로 상승, 이는 지난 13개월 중 최고 수준으로, 국내 통화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현재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과거 최고치였던 6.11%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보여짐.
- 케냐중앙은행(CBK)의 최근 기준금리 인하 이후 통화공급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수요 견인형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정책당국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동에 의존하지 않고, 이처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근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 긴축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케냐의 국경 간 무역 둔화

- 2025년 1분기 케냐의 국경 간 무역이 둔화되었으며, 수출 수익은 6.9% 감소한 KES 2,767억을 기록함. 이는 글로벌 수요 약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역내 무역 환경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아프리카와의 교역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DRC)과의 거래 감소로 인해 10% 감소한 반면, 부룬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함.
- 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수출도 차(茶)와 꽃 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수입은 전반적으로 4.5% 줄었으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그리고 예상 밖으로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음.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케냐 통계청(KNBS)은 일부 회복력을 보인 부문들을 언급하며, 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교역 다각화와 전략적 무역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함.

5)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higher-money-supply-lifts-core-inflation-to-3-percent-5109672>

○ 호스피탈리티 산업, 5년 만의 최저 성장률로 GDP 성장 정체⁶⁾

- 케냐의 호스피탈리티 산업(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2025년 1분기에 급격한 둔화를 보이며 4.1% 성장에 그침. 이는 2024년 1분기의 38.1% 성장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국가 GDP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 해당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에 그쳤으며, 농업과 제조업이 여전히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함.
-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부진은 관광 수요 약세를 반영하며, 경제 성장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함.
- 거시경제 여건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및 국내 충격이 지속될 경우 높은 GDP 성장률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17개 주 섯다운, 하루 GDP 1,800억 실링 손실 초래⁷⁾

- 시위 사태와 관련된 17개 주에서의 전국적 섯다운으로 인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업무 및 도로 교통이 마비됨.
- 해당 지역들의 일일 GDP 손실 규모는 총 1,800억 KES에 달하며, 이는 시민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주요 도시 전역에서의 상점 폐쇄와 운송 경로 차단은 상업 활동과 공급망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이번 섯다운은 고조되는 사회·정치적 긴장 상황을 반영하며,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성장에도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② PPP 관련 동향

○ 정부, 주요 사업에 녹색금융 유치를 위해 PPP 활용 확대⁸⁾

6)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hospitality-5-year-low-performance-stifles-gdp-growth-5105518>

7)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shutdown-hits-17-counties-with-sh18bn-daily-gdp-5110192>

8) <https://www.kbc.co.ke/govt-to-tap-ppp-to-attract-green-finance-for-key-projects/>

- 케냐 정부는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녹색금융을 유치하기 위해 민관협력(PPP)을 점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리 키냐인주이(Lee Kinyanjui) 투자부 장관은 상업은행들이 환경 중심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
- 케냐중앙은행(CBK)은 최근 녹색 금융 분류 체계(green finance taxonomy) 정책을 도입, 금융기관들이 환경 및 기후 친화적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활동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이 정책은 차입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케냐는 아프리카 전체 녹색금융의 약 50%를 이미 유치하고 있으며,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저리 자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조치와 PPP 방식을 도입할 계획임.

○ EBRD, 케냐에 사무소 설립 예정 - 중소기업(MSMEs) 및 민관협력(PPP) 강화 목적⁹⁾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나이로비에 아프리카 대륙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이를 중소기업(MSME) 성장과 민관협력(PPP) 확대에 기여할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함.
- EBRD는 녹색 투자 및 기후 금융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인 협력을 케냐의 ‘하향식 경제변혁 아젠다(BETA)’에 맞춰 추진할 계획임.
- 루토 대통령과 오딜 르노-바소 EBRD 총재는 나이로비에서 투자자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 루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총리와 교육, 식량 안보, 무역, ICT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을 가짐.

○ 케냐, 의회 비준 후 EBRD 가입 예정¹⁰⁾

- 국회가 비준안을 승인함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정식 가입할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인프라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MSMEs) 지원을 위한 양허성 자금을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고금리 국내 차입에

9) <https://www.kbc.co.ke/ebrd-to-set-up-in-kenya-to-strengthen-msmes-public-private-partnerships/>

10)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7/kenya-to-join-european-development-bank-after-parliamentary-approval/>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

- EBRD는 나이로비에 아프리카 지역본부를 설립할 계획으로, 이는 케냐의 국제 금융 시스템 내 위상과 가시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의회는 이번 조치를 중요한 진전으로 보며, 케냐가 역내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함.

○ 콘자, 일본 기술 대기업 초청...디지털 혁신 협력 강화¹¹⁾

- 콘자 테크노폴리스는 일본의 주요 기술 기업들을 초청하여, 디지털 혁신,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함.
- 대표단은 인공지능(AI), 로봇틱스, 그린 에너지, 스마트시티 솔루션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이는 케냐가 역내 기술 허브로 도약하려는 국가 목표와 부합함.
- 일본은 자금 지원과 기술 지식 공유를 통해 콘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논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PPP)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번 협력은 케냐 디지털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콘자가 동아프리카 기술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 정부, 연말 전 JKIA 확장 공사 착수 예정¹²⁾

- 케냐 정부는 2024년 말 인도 아다니 그룹과의 논란이 된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오랜 기간 추진이 지연됐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KIA) 확장 공사를 2025년 말 이전에 착공할 계획임.
- 데이비스 치르치르 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JKIA의 자산을 활용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제 개발금융기관들과 협의회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이번 확장 사업은 인프라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관광 및 수출 지원, 국제 항공사 유치를 목표로 함.

11)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6/konza-hosts-japanese-tech-giants-to-boost-innovation-ties/>

12) <https://www.citizen.digital/business/govt-to-begin-jkia-expansion-before-end-of-the-year-n365946>

- 현재 여객 수와 수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KIA는 노후된 인프라와 단일 활주로로 인해 운영에 한계를 겪고 있음.

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

- 정부, 대형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KES 6억 2,200만 투자¹³⁾
 - 케냐 정부는 나이로비 국립공원과 아티-카피티(Athi-Kapiti) 평원을 연결하는 폭 100미터(말단부 200미터)의 야생동물 이동 통로 조성에 총 KES 6억2,200만을 투자할 계획임. 이는 인간-야생동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
 - 해당 프로젝트에는 나망가(Namanga) 도로에 설치될 야생동물 전용 육교에 KES 5억5,000만, 수출가공지대(EPZ) 내 비완다니(Viwandani) 도로 하부 통로에 KES 5,000만, 약 15km 구간의 울타리 설치에 KES 2,250만이 배정되어 있음. 사업 자금은 국고에서 지원되며, 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법'에 따른 케냐의 보전 전략의 일환임.
 - 이는_점점 고립되고 있는 나이로비 국립공원에 갇힌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중요한 확산 지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젝트 전담 태스크포스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개발 파트너 및 보전 관련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함.
 -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KETRACO, 에티오피아 전력 탄자니아 송전량 두 배로 확대¹⁴⁾
 - KETRACO는 400kV 이시냐(Isinya)-싱기다(Singida) 송전선을 확장함으로써 에티오피아에서 탄자니아로의 전력 송전 용량을 100메가와트(MW)로 두 배 증가시켰으며, 이로써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전력망(SAPP) 간의 역내 전력 공유가 한층 강화됨.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자금 지원과 북중국전력공정공사(North China Power Engineering)의 시공으로 건설된 총 315마일(507km) 길이의 고전

13) <https://nation.africa/kenya/counties/machakos/state-to-spend-sh622m-on-major-wildlife-migration-corridor--5100844>

14)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industry/ketraco-doubles-transmission-ethiopia-electricity-to-tanzania-5103502>

압 송전선은 2025년 6월 말 시험 가동을 시작한 후 운영에 들어갔음.

- 이번 사업은 동아프리카 전력망(EAPP) 구축의 일환으로, KETRACO가 추진하는 98km 길이의 이시냐-나망가 간 400kV 이중회로 송전선 등과 함께, 에티오피아-케냐-탄자니아 간 전력 교류 확대를 목표로 함.
- 확장된 송전 용량은 에티오피아의 전력 수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비용 효율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간다 카발레가 공항, 끝없이 ‘95% 완공’ ...진척 없는 미스터리¹⁵⁾

- 여러 차례 예산안과 국가 연설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발레가 국제공항(KIA)은 여전히 완공률 95%에 머물러 있음.
- 이 사업은 이동식 관제탑 설계 변경이 중도에 철회되는 등 여러 사유로 항공관제탑과 기타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2년 넘게 지연되고 있음.
- 공항 완공은 석유 기업들이 티렝가(Tilenga) 및 킹피셔(Kingfisher) 상류 석유·가스 개발사업과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COP) 중류 사업 착수를 앞두고 중장비를 반입할 예정이던 시점에 맞춰 계획되었음.
- 정부의 추가 자금 집행 지연으로 인한 재정 부족도 공사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케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SGR 벨트 개발 촉구받아¹⁶⁾

- 전문가들과 외교 관계자들은 케냐가 표준궤철도(SGR) 회랑을 일자리 창출, 산업 성장, 역내 무역을 촉진하는 경제벨트로 전면 개발할 것을 촉구함.
- 중국의 양쯔강 경제벨트(Yangtze River Economic Belt)와 같은 성공 사례가 본보기로 제시되었으며, 기존 SGR 인프라를 활용해 농업, 관광, 제조, 물류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조됨.
- SGR은 이미 1,300만 명 이상의 승객과 4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수송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은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15)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the-puzzle-of-uganda-s-kabalega-airport-5095332>

16) https://www.standardmedia.co.ke/opinion/article/2001523774/kenya-urged-to-develop-the-sgr-belt-to-create-jobs-for-economic-growth#google_vignette

서는 보다 체계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SGR 부채에 대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중국-케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됨.

○ 탄자니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위해 원자력 발전 도입 추진¹⁷⁾

- 탄자니아 정부는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에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할 계획을 밝힘.
- 도토 비테코(Doto Biteko) 부총리는 국가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책 및 규제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함.
- 원자력 발전은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되며, 보건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인적 역량 강화 계획도 포함됨.
- 이번 발표는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아프리카 원자력 에너지 혁신 정상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지역 차원의 현대 원자력 기술 도입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음.

○ 콘자 테크노폴리스, 케냐 최초 국가 드론 회랑으로 승인¹⁸⁾

- 케냐 민간항공청(KCAA)은 콘자 테크노폴리스를 케냐 최초의 국가 드론 회랑(National Drone Corridor)으로 승인, 시계 외 비행(BVLOS) 드론 운항을 통제된 공역 내에서 허용함.
- 이 회랑은 농업, 보건, 물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을 지원하고, 테스트, 훈련, 연구 활동을 촉진할 예정.
- 이번 조치는 케냐를 스마트 항공 및 기술 혁신 분야의 아프리카 대륙의 선도국으로 위치시키고, 투자 유치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 모든 드론 운항은 안전 기준에 따라 규제되며, 전담 운영 조정관이 배치되어 공역 활용의 효율성과 규정 준수를 관리할 예정.

17) <https://www.the-star.co.ke/news/africa/2025-07-01-tanzania-targets-nuclear-power-to-meet-soaring-energy-demand>

18) <https://www.the-star.co.ke/news/2025-07-08-konza-technopolis-approved-as-kenyas-first-national-drone-corridor>

○ 980억 실링 규모 코틀로-모도가셰 도로 사업 본격 착공¹⁹⁾

- 북부 케냐의 코틀로-모도가셰(Kotulo-Modogashe) 도로 건설 사업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집행을 막고 있던 가처분 명령이 법원에 의해 해제되면서 본격 착공될 예정.
- 이 프로젝트는 케냐 도로청(KeNHA)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부분 자금 지원을 받아, 이시올로(Isiolo)에서 만데라(Mandera)를 연결해 역내 통합과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함.
- 환경토지법원(Environment and Land Court)은 케냐도로청(KeNHA)이 보상금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며, 국가토지위원회(National Land Commission)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음.
- 해당 도로는 5개 카운티를 연결하는 교통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며, 보상은 토지 수용보다는 생계 및 자산 보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

○ KenGen, 울카리아 발전소 컨설팅 재입찰 지시에 법적 대응²⁰⁾

- 켄젠(KenGen)은 신규 울카리아 지열 발전소 관련 컨설팅 용역 입찰을 재평가하라는 공공조달행정심판위원회(PPARB)의 지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섬.
- 켄젠은 재평가가 진행될 경우 발전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케냐의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 용량 확대에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의 진척이 지연될 것을 주장함.
- 이번 분쟁은 조달 감독 기관의 결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켄젠은 해당 결정이 사업 일정과 계약의 확실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켄젠의 소송 제기는 공공 조달의 적정 절차 준수와 케냐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부각시킴.

○ 루토 대통령, 런던증권거래소 개장…케냐 파이프라인 IPO 추진 발표²¹⁾

- 루토 대통령은 케냐 정부가 2025년부터 나이로비 증권거래소(NSE)를

19) <https://www.constructionkenya.com/12566/kotulo-modogashe-road-project/>

20)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industry/kengen-fights-to-proceed-with-olkaria-plant-consultancy-work-5105606>

21)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3227/ruto-opens-london-stock-exchange-unveils-plan-to-sell-kenya-pipeline-through-ipo>

통해 케냐 파이프라인공사(Kenya Pipeline Company)를 포함한 주요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식 연설에서 루토 대통령은, 케냐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고, 인프라 및 산업 성장을 위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함.
- 정부는 2024년 케냐 자본시장의 견조한 성과를 언급하며,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인 부채 관리와 같은 개혁 조치를 강조하고, 국내 자본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을 추진하고자 함.
- 루토 대통령은 또한 포용적 금융, 중소기업, 그린 본드, 아프리카 전역의 지속가능개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Mobilist, FSD Africa 등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해 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함.

④ 정치 동향

○ 재정법 반발, 루토 대통령과 청년층 간 균열 심화²²⁾

- 2024년 재정법(Finance Bill)의 세금 인상에 대한 격렬한 시위 이후, 루토 대통령과 케냐 청년층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됨.
-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해당 법안은 철회되었으며, 이는 청년 세대의 시민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한편, 정부의 민심과의 괴리를 드러냄.
- 루토 대통령이 초기 시위대의 목소리를 무시한 대응은 역효과를 낳았고, 청년층은 경제 정책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음.
- 이번 사태는 책임성과 포용적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케냐 청년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각성을 보여줌.

○ 루토 대통령, 우크라이나 총리와 교육·식량안보·무역 협력 논의²³⁾

- 루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총리는 스페인에서 회담을 갖고, 교육, 식량안보, 무역, ICT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함.
- 케냐는 자국의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와의 식량

22)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3035/how-revolt-against-finance-bill-soured-rutos-relationship-with-the-youth>

23) <https://www.the-star.co.ke/news/2025-06-29-ruto-ukraine-pm-in-talks-on-education-food-and-trade>

안보 협력을 통해 역내 물자 유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함.

- 양국은 유엔(UN) 원칙과 글로벌 안정을 지지하는 다자외교 및 평화 유지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함.
- 이번 회담은 개발금융 콘퍼런스와 병행해 진행되었으며, 루토 대통령은 기후 행동 및 디지털 무역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함..

○ 푸장현, 일대일로 협력 아래 중-케 협력 심화 약속²⁴⁾

- 류시(劉曦) 푸장현장은 일대일로(BRI) 구상 하에 케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산업 혁신, 무역,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2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중국-케냐 경제무역촉진회의에서, 류시 푸장현장은 푸장의 경제 역량과 '3+3+1' 산업 발전 전략을 강조하며, 태양광, 석유,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합작 투자 확대를 촉구함.
- 푸장과 케냐 간의 교역은 2024년에 1억 위안으로 급증했으며, 케냐는 아프리카 내 두 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함. 푸장이 관할하는 진화시는 여전히 중-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문화적 유대와 환경 협력 또한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양측은 상호 발전과 인적 교류, 그리고 보다 심화된 상업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루토 대통령, 시위 지속 속 새 국정 부담 직면²⁵⁾

-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온라인상에서 조직된 청년 주도의 활동가들이 7월 7일 '사바 사바(Saba Saba)' 주간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정부의 반대 억압을 규탄함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
- 이번 시위는 6월 25일 발생한 전국적 시위에 뒤이은 것으로, 당시 15~16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알버트 오장(Albert Ojwang)과 보니페이스 카리우키(Boniface Kariuki)의 사망과 같은

24) <https://www.kbc.co.ke/pujiang-commits-to-deepening-china-kenya-cooperation-under-belt-and-road-initiative/>

25) <https://www.the-star.co.ke/news/2025-07-07-rutos-new-headache-as-activists-sustain-demos>

주요 사건이 포함됨.

- 시위대는 경찰청장(Inspector General), 국가정보국(NIS) 국장 등 주요 보안 책임자의 해임과 경찰 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함.
- 관측통들은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과도한 공권력 대응이 이어질 경우, 시민 불안이 격화되어 루토 대통령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으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함.

○ 사바사바(Saba Saba) 유혈 시위, 경찰 과잉진압 논란 속 케냐 전역 충격²⁶⁾

- 케냐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1990년 사바사바 운동 35주년을 기념한 전국적 시위 도중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 당함. 나이로비, 카지아도, 논다루아 등지에서 충돌이 발생함.
-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다수의 충격과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키텅겔라(Kitengela)와 응공(Ngong) 등 주요 도시에서는 병원과 공공시설이 파손됨.
- 시위는 전국적인 상점 폐쇄와 주요 도로(나이로비-나망가 고속도로 등)의 교통 마비를 초래했고, 경찰은 GSU(일반 서비스 부대) 등 추가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음.
- 케냐 국가인권위원회(KNCHR)는 경찰의 과잉 진압과 법원 명령 불이행, 폭력 사태 당시 범죄조직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

○ 모세스 쿠리아, 루토 대통령 경제 고문직 사임²⁷⁾

- 모세스 쿠리아는 2027년에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논란이 된 트윗으로 인한 대중의 반발 이후,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수석 경제 고문직에서 사임함.
- 쿠리아는 자신의 사임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하며, 루토 대통령이 해당 결정을 수용했으며 자신이 행정부에서 맡았던 직책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음.
- 사임 발표에서 그는 대통령과 함께 공동 설계했다고 주장한 ‘상향식

26)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3673/at-least-10-killed-scores-injured-as-unrest-spreads-across-counties>

27)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7/moses-kuria-resigns-as-president-rutos-economic-advisor/>

경제변혁 아젠다(Bottom-Up Economic Transformation Agenda)' 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강조함.

- 그의 사임은 전국적인 사회 불안과 청년 주도의 시위, 고조되는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이뤄졌으며, 국정수반실(State House)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Gatundu-Mukinye-Juja Road Project²⁸⁾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도시도로청(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 (도 급 사) 미정 (2024년 기준 입찰 진행 중)
- (사 업 비) 약 USD 3,200만
- (편 당) 전액 국가 재정 (100%)
- (사업내용)
 - 노선: 42km (Gatundu-Mukinye-Juja 구간) – 키암부(Kiambu)의 농업 및 산업 지대를 연결
 - 사업 범위:
 - 폭 7m, 왕복 2차선 아스팔트(비투멘) 포장 표준으로 개량
 - 배수 시설 및 도로 안전 설비 설치 (가드레일, 도로표지 등)
 - 경제적 효과: 차(茶)커피 운송 활성화 및 티카 고속도로(Thika Superhighway) 교통 혼잡 완화
- (추진현황)
 -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완료
 - 2024년 1분기: 입찰 공고 (마감일: 2024년 5월)
 - 2024년 3분기: 시공사 평가 진행 중 (2024년 9월 계약자 선정 예정)
 - 2025년: 계약 체결 및 착공 준비 완료 시 공사 착수 예정

○ (주요상황) 케냐 관자(Kenya Kwanza) 정부의 인프라 개발 아젠다 내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키암부(Kiambu) 카운티 개발계획에 포함됨. 지역 지도자들은 농산물의 시장 접근 지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입찰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 무킨예(Mukinye) 워드에서 토지 보상 관련 분쟁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국가토지위원회(NLC)의 중재 하에 조정 절차가 진행 중. 주요 과제로 시공사 선정 과정의 행정 절차 지연과 토지 수용 지연 등이 있으며, 200가구 이상의 주민이 보상금을 청구한 상태.

28) <https://infrastructure.go.ke/index.php/news-and-events/8-launch-of-the-construction-of-gatundu-mukinye-juja-road>

② Syokimau-Katani Road Upgrade²⁹⁾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도시도로청(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후원
- **(도 급 사)** 입찰 공고 완료, EPC(설계·조달·시공) 시공사 미선정, 2024년 9월부터 유지보수 계약 체결
- **(사 업 비)** 유지보수 패키지 예산: KES 3,990만, 전면 업그레이드 예산: 미공개
- **(편 당)** 중앙정부(KURA 집행) 재원, 도로유지보수부담금(Road Maintenance Levy) 포함
- **(사업내용)**
 - 사업 범위 (Scope of Works): 도로 고도화 및 정렬 조정, 배수시설 포함하여 역청 포장(bitumen standard) 기준으로 개량. 총 KES 3,990만 규모의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
 - 토지 취득 (Land Acquisition): 총 면적 약 0.0921헥타르(ha)에 해당하는 주민 소유 토지 3필지 매입 예정. 보상 청구는 국가토지위원회(NLC)를 통해 처리 중.
 - 현장 교통 영향 (Site Disruptions): 2025년 초, Mlolongo/Syokimau 지역의 Quarry Road가 2개월간 재할 공사로 인해 폐쇄 예정, 지역 교통 흐름에 영향 예상.
- **(추진현황)**
 - 2023년 11월: 케냐 도시도로청(KURA), 도로 개선 계획 및 보상 공고 발표
 - 2024년 9월: Syokimau-Katani 구간 포함 정기적·성과기반 유지보수 계약 체결
 - 2025년 2월: 보상 청구 마감일 설정,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청구 절차 안내
 - 2025년 2월~4월: Quarry Road 폐쇄 및 유지보수 작업 시행, 향후 본격적인 개량 공사의 준비 단계

○ (주요상황)

- 토지 보상 단계: 케냐 도시도로청(KURA),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를 거쳐 공식 수용 절차를 개시, 2025년 2월 21일까지 보상 청구 접수 예정.
- 유지보수 계약 체결: 2024년 9월부터 착수되는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KES 3,990만 배정.
- 교통 지연 발생: 채석장 도로(Quarry Road)는 재활성화 작업으로 인해 2025년 초 2개월간 폐쇄되었음.
- 정기 유지관리 통합: 도로세(Road Levy)로 유지보수 재원 조달, 이는 도로 성능과 품질의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

29) <https://www.logisticsbusinessafrica.co.za/kenya-to-acquire-land-for-syokimau-katani-road-project/>

③ Kotulo-Modogashe Road Project³⁰⁾

< 사업 개요 >

- (발주처) 케냐 도로청(KeNHA), 교통부(Ministry of Roads & Transport) 산하
- (도급사) 구간별 복수의 계약사에 의해 분할 시공 예정, 구체적인 기업명은 비공개
- (사업비) 약 KES 980억 (USD 6억 5천만), 단계별 추진
- (편당)
 - 세계은행(World Bank): Isiolo-Modogashe 및 Wajir-Elwak 구간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Elwak-Rhamu-Mandera 구간
 - 아랍 은행 컨소시엄: Samatar-Wajir 구간
 - 케냐 정부: 나머지 구간
- (사업내용)
 - Kotulo-Modogashe 구간은 총 연장 740km에 달하는 Isiolo-Mandera 회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Isiolo, Meru, Garissa, Wajir, Mandera 등 5개 주를 관통함.
 - 본 사업에는 도로를 역청(아스팔트) 표준으로 개량하고, 광섬유 통신 인프라를 병행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됨.
- (추진현황)
 - 조달 및 계약 현황
 - 2024년: Wajir-Kotulo 및 Kotulo-Elwak 구간에 대한 낙찰 계약 체결, 공사 착수.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토목공사 진행 중이며, 현장 캠프 설치 완료.
 - 법원 판결 (2025년 6월 20~24일)
 - 환경토지법원(Environment & Land Court)은 보상금 지급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법적 기반 마련.
 - 공사 착수
 - 2025년 5월: 케냐 도로청(KeNHA)은 Isiolo-Modogashe 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공식 착수, 전체 회랑사업의 일부로 진행 중.

- (주요상황) 2025년 6월 법적 절차 완료로 정부 및 재정기관의 자금 집행과 공사 추진 가능. 세계은행(World Bank)은 해당 사업의 이행 상태를 ‘보통 양호(Moderately Satisfactory)’ 로 평가, 이주민(PAP) 보상 지연을 지적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고 언급. 1단계(Isiolo-Modogashe 구간)는 2025년 5월 기준 약 40% 공정을 달성. 광섬유망 구축은 2024년 하반기 착수 예정. 본 회랑사업은 지역 연결성 및 디지털 인프라 통합을 목표로 하며, 선택 구간에 광섬유 설치가 포함됨.

30) <https://www.constructionkenya.com/12566/kotulo-modogashe-road-project/>

④ 80MW KenGen Olkaria VII Geothermal Plant³¹⁾

< 사업 개요 >

- (발주처) 케냐 전력공사(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 KenGen)
- (도급사) 국제경쟁입찰 진행 중
- (사업비) 약 KES 320억 (약 USD 2억 4,700만)
- (펀딩) 켄젠 자체 자금 70% + 개발 파트너 30%
- (사업내용)
 - 발전용량: 80메가와트 (기저부하형 재생에너지)
 - 위치: 나이바샤(올카리아 지열지대) – 기존 발전소 확장
 - 환경 및 사회영향평가(ESIA): 완료 후 환경관리청(NEMA)에 제출됨, 총 19개의 생산용 증기정(steam well) 개발 포함
 - 핵심 구성 요소:
 - 깊이 2.5km의 지열정 5기 및 증기 수집 시스템
 - 고효율 바이너리 사이클 기술 적용
 - 220kV 송전선로를 통해 올카리아 변전소와 연계
 - 탄소중립형 설비: 케냐의 100% 친환경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
- (추진현황)
 - 2022-2023년: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ESIA) 수행 완료, 관련 컨설팅 용역 제안요청서(RFP) 발행 (환경관리청[NEMA] 요건 충족)
 - 2024년 1분기: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자 선정을 위한 자격심사요청서(RFQ) 발행 (입찰 마감: 2024년 3분기 예정)
 - 2024년 2분기: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공동 재정지원(co-financing) 검토 중
 - 2025년: 시공 개시 예정 (시공사 선정 완료 이후 착수 예정)

○ (주요상황)

- 입찰 예비후보: Ormat Technologies(이스라엘), Mitsubishi(일본), Sinopec(중국)
- 사업 효과: 올카리아(Olkaria) 지역의 총 발전용량을 1,000MW 이상으로 확대, 케냐를 아프리카 지열 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시킴. 케냐 정부의 2030년까지 5,000MW 달성 목표 지원
- 탄소배출권 수익: 연간 약 USD 2,900만 규모의 탄소배출권 수익 창출 가능, 청정에너지 전환 기여
- 고용 창출: 건설 기간 동안 1,2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기회 제공
- 쟁점 사항: 마사이(Maasai) 공동체와의 토지 보상 협의 진행 중

31) https://renewableenergynews.co.ke/kengen-invests-sh32b-in-olkaria-vii-to-boost-geothermal-power/?utm_source=chatgpt.com

2 협력센터 운영 보고

- 해당사항 없음